



눈의 외상

김 평 남 / 학교건강관리소 안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호교사가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사례별로
 연재하고 있다. 집필은
 학교건강관리소 부속의원 팀이
 전공별로 맡아주고 있다.**
 (편집자)

좋습니다.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위험한 경우는 콘크리트 벽을 쇠파괴로 세게 치거나 철관을 쇠파괴로 심하게 두드리는 찰라에 작은 쇠파괴가 아주 빠른 속도로 튀어 올라서 안구 속에 들어갈때입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예후가 나쁘게 됩니다.

1.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경우

눈을 비비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물이 흘러 나오면서 먼지도 흘러 나오게 됩니다. 가끔 표면이 거칠거칠한 탄 가루 같은 먼지가 들어간 경우에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때 먼지가 들어간 눈의 윗 눈꺼풀을 뒤집어 보면 아래에 표시한 것 같은 부분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는 깨끗한 꺼즈나 손수건 등으로 쉽게 닦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쇠파괴 같이 끝이 예리한 먼지는 각막에 파고 들어 가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닦아 낼 수가 없으므로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 받게 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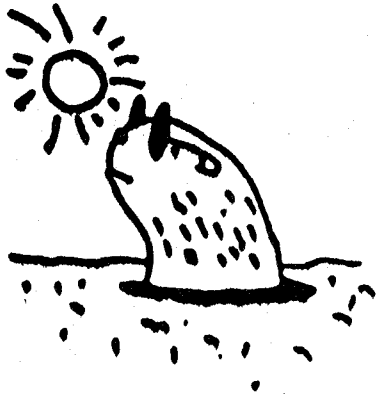
2. 화상

흔하지는 않지만 성냥불이나 딱총 화약을 잘못 다뤄서 눈에 화상을 입는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똥이 될때 급하게 눈을 감기 때문에 눈꺼풀의 속눈썹 부위의 아래 위 같은 위치에 화상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눈을 감는 것이 늦어서 안구에 화상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이때는 생리식염수나 찬 수도물로 씻은 뒤에 병원에 보내면 됩니다.

3. 눈 가까운 부위나 눈을 맞은 경우

눈썹 중간을 맞았거나 눈썹 부위를 주



먹이나 막대기 등으로 맞았을 때 눈꺼풀 속에 출혈이 생겨서 피랴게 멍들고 부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때 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코를 세게 풀면 얼굴 전체가 부어 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때는 반듯하게 눕게하고 얼음 찜질을 하면 하루 이틀새에 좋아집니다.

눈이 아니고 머리를 심하게 맞았거나 머리를 딱딱한 것에 부딪쳤는데 두 눈꺼풀에 피멍이 들면서 부어 오르는 경우에는 신경외과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먹이나 야구공 같은 것에 눈을 맞았을 때 맞는 순간은 눈에서 불이 번쩍 나는 것 같고 맞지 않은 눈을 가리고 보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런때는 눈속에 출혈이 있는 수도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것은 전방 출혈로서 이런 경우에는 2~3일 후에 홍채염이 일어나는 수가 많고 치료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드물게는 안저 출혈이 생기기도 하는데 안저 출혈이 심하면 초자체에도 출혈이 섞이게 되고 아주 드물게는 출혈성 녹내장이 생기

기도 합니다.

망막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면 안구진탕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때는 망막의 일부나 전체가 부어 올라서 시야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으로 돌아 오게 됩니다.

4. 눈을 뾰족한 것에 찔렸을 때

상자에서 못을 뽑다가 그 못에 찔리거나 밤나무를 흔드는 옆에 있다가 밤가시에 눈을 찔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때는 상처가 작지만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눈을 찔려어도 눈에 염증이 생기지는 않았는데도 3~4주가 지나도록 치유 되지 않은 채 있다가 다치지 않은 쪽 눈에 염증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감신경염이라고 하는데 예후가 나쁜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은 다치지 마자 치료를 잘 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5. 화학 약품이 눈에 들어 갔을 때

화학 실험 중에 부주의 때문에 눈에 약품이 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산성인 것은 2% 중조수로 세척하고, 알칼리성인 것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2% 붕산수로 세척을 하라고 하지만 이런 곳에 집착하지 말고 가능하면 멸균된 물이 좋지만 수도물도 무방하니 빨리 많은 양으로 약품이 들어간 눈을 세척 한 뒤에 병원에 보내어야 합니다.

눈의 외상에 대비해서 꺼즈, 탈지면, 안대, 좀 많은 양의 멸균 식염수, 주수기, 항생제, 연고 등을 상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